

<신심생활과 신심행사>

1장. 전례와 신심행사의 차이

1. 전례의 의미

전례는 교회의 의식(儀式)으로 하느님과 구원되어야 할 인간들과의 결합이며, 끊임없는 만남이다. 즉 전례란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전례라는 라틴어 리투르기아(liturgia)에서 잘 나타난다. liturgia의 어원은 희랍어 laos(백성) + ergon(일)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전례의 주체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이다. 교회는 전례를 통해 하느님을 세계의 창조주, 또한 주재자(主宰者)로 공경하고, 그분께 감사와 속죄를 드리며 기원한다. 이 전례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미사(Missa)이다.

2. 전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전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께 올리는 예배행위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전례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적인 기도로 봉헌할 수 없다. 미사는 한 명이 봉헌하든 1,000 명이 봉헌하든 모두 하나인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둘째 교회에서 승인한 집전자(성직자)가 집전해야 한다.

전례는 교회의 공적인 경신례이므로 아무나 집전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미사를 아무나 집전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전례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성직자, 평신도 모두가 집전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다.

사제는 미사와 다른 여러 가지 성사들을 집전할 수 있고, 부제는 세례성사, 혼인성사, 장례식 등을 집전할 수 있고, 평신도들은 여러 가지 축복예식(새 집의 축복, 병자들의 축복, 식탁의 축복)을 집전할 수 있다.

셋째 교회 인준예식서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전례서는 교황청의 성사 경신성에서 출판된 표준판 예식서(Editio typica)를 각 나라별로 주교회의에서 번역하여 교황청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가톨릭교회의 단일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하겠다. 만약에 서울의 미사와 뉴욕의 미사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는다면 가톨릭교회의 외적인 단일성이 훼손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례에는 미사, 7성사 및 준성사(축성·축복), 수도자가 드리는 성무일도(시간전례라고도 불리는 매일의 기도)가 있다.

3. 신심행사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단체적 경배행위를 신심행사라고 한다. 이러한 신심행사(Pia Exercitia)는 전례의 요건을 채우지 않고 집전되는 교회의 경신례로서 집전자, 공인예식서 등에서 자유로운 예절들을 의미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성시간, 성체강복(성체조배), 말씀의 전례 등이 있다.

그러나 본당에 소속된 단체나 특별한 공동체 차원에서 거행하기 위해서는 신심행위의 내용과 기도도 교구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각 본당, 가정, 공동체, 모임에서 자유롭게 거행할 수 있다.

2장. 말씀의 전례

1. 정의 및 유래

말씀 전례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경신 행위입니다. 성찬의 전례와 대비되기에 말씀 전례라고 불리지만 독립적으로 거행될 때는 집전자나 예식서 등에서 자유로우므로 전례가 아니라 경신례이다.

말씀 전례는 구약시대에 유대인의 회당인 시나고가 (Synagoga)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시나고가 예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예수와 사도들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예절에 참여하였으며(루가 4,16-22 ; 사도 13, 5-41), 초대 교회 신자들도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여 성경을 읽고 들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말씀 전례 형식은 성 금요일 전례의 첫 부분과 부활축일 전야에 거행되는 말씀의 전례 부분이다.

-> 성 금요일 전례는 미사가 아니다. 성금요일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에 전통적으로 성사집전을 거행하지 않았다. 대신에 말씀의 전례만 거행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 경배 예식과 영성체 예식이 도입되었다.

부활성야 미사에서도 7독서 후에 본기도가 시작되지 않는가? 그 후에 서간 독서가 다시 시작된다.

2. 교회의 가르침

말씀 전례는 대축일 전 날, 구세주 대림절 및 사순절의 어느 요일, 또 주일과 축일에 장려되어야 하며, 특히 사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제나 혹은 주교에게서 권리를 받은 사람이 이 말씀 전례를 지도해야한다고 가르치고 있다.(전례헌장 35항)

이렇게 말씀 전례는 초대교회로부터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다방면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보아도 선교지역에서 사제의 부족을 메우며 복음의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한국교회의 경우, 주일 미사의 의무까지 완전히 채워 줄 수 있는 공소예절이 이에 속한다.

말씀 전례를 거행할 만한 적당한 경우는 피정이나 회합 때 사제가 없어서 미사가

곤란한 경우, 큰 축일 전야에, 성모성월이나 순교자성월 등의 특별한 시기를 뜻 깊게 지내기 위하여 각 성월의 초기에 (성모의 밤, 순교자의 밤 등) 거행하면 신자들의 신심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성경에 익숙해 있지 않은 신자들에게 말씀 전례를 지내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경 말씀에 보다 친숙해지도록 이끌어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신자 재교육이나 기초공동체 건설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3. 예식의 전반적인 사항

1) 시작 성가(선다) 2) 시작 인사 3) 참회 4) 자비송 5) 본기도 6) 독서(앉는다)
7) 응답 성가 8) 복음(선다) 9) 강론(앉는다) 10) 묵상(약 5-10분 정도) 11) 신자들의 기도 12) 주의 기도(선다) 13) 마침 기도 14) 강복(평신도가 할 경우 성호경) 15) 마침 성가

3장. 성체 현시 및 강복

1. 정의 및 유래

가톨릭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 때부터 성체(Eucharistia)에 대한 특별한 공경과 경외를 드렸으며, 이에 따라 성체조배, 성체현시, 성체강복, 성체행렬 등 다양한 성체경배 예식이 생겨나 발전되었다. 이 중에서 성체 현시와 강복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성체조배를 하고 사제가 성체를 성광에 모시고 분향함으로써 성체께 특별한 찬미와 공경을 드리는 예식이다.

=> '성체 현시'는 빵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찾아뵙고 기도드리며 묵상하는 자리이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분과 일치하도록 신자들의 정신을 이끌어주는 것이다(성체신심 예식서 82항 참조). 성체 현시를 마칠 때 성체강복이 이루어진다.

사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지방 주교의 허락을 받은 수도자나 평신도들에 의해 성체가 현시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강복은 사제만이 할 수 있다.

2. 교회의 가르침

1551년의 트리덴틴 공의회는 "전례는 어떤 신심행사보다 우월하므로 그리스도 신자들의 신심행사는 전례와 조화되고 어느 정도 전례에서 유래되며 또한 신자들을 전례에로 인도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전례헌장 13항).

그러므로 성체현시 동안에는 같은 성당 안에서 미사를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시간이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미사 후에, 아무런 예절 없이 잠깐 성체 현시한 다음 기도문 외고 성체강복을 주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미사를 통해 충분히 성체와의 일치를 이루었으며, 더 이상 강복이라는 단순한 행위에 감실에 계시는 성체까지 거동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체 신심 예식서도 강복만을 주기 위한 짧은 시간의 성체 현시는 금한다고 말한다(89항; 성체공경 훈령 66항 참조).

그러나 장시간의 장엄한 현시는 미사 때 현시를 위한 성체를 함께 축성하여 그것

을 성광(Ostenorium)에 모시고 시작할 수 있다. 성체현시 중에 기도, 성가, 성경봉독, 충분한 시간의 침묵기도 등을 거행한다. 현시는 성체를 들어 신자들에게 강복을 줌으로써 끝나며, 강복을 주기 전에 적당한 성가와 기도를 바친다. 강복 후에는 성체 다시 감실로 모신다.

3. 예식 전 준비 사항

- (1) 준비물 : 증백의, 깡바(라틴어인 cappa - 망토와 비슷한 형태의 전례복), 영대(백색), 향로, 향합
- (2) 주수상 : 종, 어깨보, 성체강복 전 기도문
- (3) 제 대 : 성광, 성체포, 5지 촛대(3지 촛대) 혹은 촛대를 4-6개 놓는다.
- (4) 제 단 : 방석 3개



4. 예식의 전반적인 사항

1) 입당 성가

2) 성체 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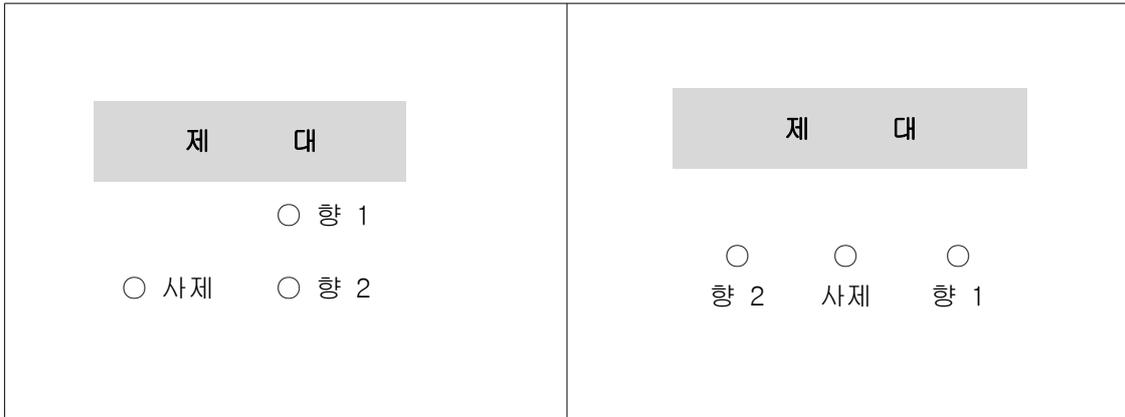
이때 복사와 신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는다.

(감실 문이 열리면 꿇고, 현시를 끝내고 성체를 다시 감실로 모시면 일어선다)

3) 분향, 성체께 대한 성가

향 1은 향로를 열고 향 2는 향 1의 왼쪽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는 향로를 받쳐 들고 왼손으로는 향합을 향로와 나란히 받쳐 든다. (그림 1).

주례자를 중심으로 양 옆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성체께 대한 성가가 나오면 향 1은 주례자에게 향로를 건네준다. (그림 2).



분향이 끝나면 향 1 . 2 는 향로와 향합을 제의실에 놓고 자기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4)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 (가톨릭 기도서 p.70 참조)

5) 묵상 (5-10분 정도, 앉는다)

묵상이 끝나면 향로와 향합을 든 향 1 . 2 는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Tantum ergo(가톨릭 성가 189~193번)가 나오면 앞의 그림과 같은 자리에서 향을 피워 주례자에게 건네준다.

=> "Tantum ergo"는 현시된 성체께 경배를 드리며 찬송하는 의미의 노래이다. 이것은 제1행의 가사인 "Tantum ergo sacramentum veneremur cernui"(지존하신 성체성사께 엎드려 경배하세)가 이 경배행위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주례자의 분향이 끝나면 향 1.2 는 제의실(혹은 제대 옆 적당한 곳)에 향로와 향합을 두고 향 2는 '성체강복 전 기도문'을 들고 향 1은 마이크를 들고 그림 2의 위치에 다시 무릎을 꿇는다.

6) 성체강복 전 기도

주례자의 성체강복 전 기도가 끝나면 일어나서 향 1은 종을 들고 향 2는 주례자에게 어깨보를 씌워준다. 그 후 사제가 제단 위로 올라가면 종을 든 향 1과 향 2는 함께 무릎을 꿇는다.

7) 성체강복

향 1은 주례자가 성체를 모신 성광을 들어 올릴 때부터 내릴 때까지 종을 친다. 강복이 끝나면 주례자가 성체를 감실에 모시고 내려오면 향 1은 종을 내려놓고 퇴장 준비를 하며 향 2는 제대로 올라가 주례자 뒤에서 주례자로부터 어깨보를 받아 걸어놓고 퇴장 준비를 한다. (주례자가 성체를 모시고 감실문을 닫을 때 신자들은 일어선다) => 주례사제에 따라서 '하느님 찬미경'을 하는 경우도 있다.

8) 퇴장 성가

4장. 성 시간

1. 정의 및 유래

성시간이란 성시간은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의 하나로 한 시간 동안 특별히 갓세 마니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을 말한다. 즉, 성시간은 인류를 위해 고통받으시는 예수성심께 속죄와 희생, 감사와 위로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마태26,40)라고 하신 성서 말씀에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교부들(히벨리투스, 이레네우스, 유스티누스 등)에 의해 행해져왔으며, 특히 성녀 말가리따 마리아 알라콕(Margaret Mary Alacoque) 수녀에게 발현하신 성심을 통해, 당시까지 개인적이며 지역적으로 행해지던 성심공경이 대중적인 신심행사로 정착하게 되었다.

1674년 어느 날, 프랑스 방문회(The Visitation Order) 수녀인 말가리따 마리아 알라콕에게 70여회 발현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성녀께 살아 움직이는 당신 성심을 보이시며 여섯 가지의 공경행위를 명하셨는데, 그중에 성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첫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 내가 겪은 극심한 고통에 너를 참여 시키겠다. 밤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깨어서 성부의 의노를 풀어드리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보속하며 성시간을 지키도록 하여라." 하셨다.

그 후 교회는 말가리따 수녀의 시복에 즈음하여 세밀한 조사를 거쳐 말가리따 수녀가 받은 사적 계시가 교회의 신앙이나 윤리에 어긋남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2. 교회의 가르침

이에 교회는 예수 성심 공경의 한 방법인 성시간 신심을 강조하고,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시간에 참여하는 이에게는 10년 한대사를 주고, 1933년 교황 비오(Pius) 11세는 성시간에 참여한 자로서 고백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하는 이에게는 전대사를 허락하였다.

성심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단 말이나"(마태 26, 40)고 하신 예수 성심의 고통을 깊이 묵상 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마르 14, 28).

=> '성시간'은 성체현시의 예식에 예수 성심 신심을 덧붙여 거행하는 경우이다. 성시간은 말씀 전례와 성체 기도문, 그리고 강복은 동일하지만, 예수 성심 신심에 따라 주님과 한 시간 함께 깨어 기도드린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예식을 되도록 한 시간 가까이 채우려고 노력한다. 또 '하느님 찬미경' 같은 예수 성심에 관한 기도문이 추가되어 있다.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이 성체 현시 예절에 추가됨으로 인해 성시간은 '신심행사'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3. 예식 전 준비 사항

- (1) 제의실 : 종백의, 깡바, 영대, 향로, 향합
- (2) 주수상 : 종, 어깨보, 성체강복 전 기도문

(3) 제 대 : 성광, 성체포, 5지 촛대(3지 촛대) 혹은 촛대를 4-6개 놓는다.

(4) 제 단 : 방석 3개

4. 예식의 전반적인 사항

복사에절은 성체 현시 및 강복 때와 동일하다.

1)입당 성가(선다) 2)성체현시(끓는다) 3)분향 및 성가 4)취지의 말씀(선다) 5)성서 봉독(읽는다, 평신도가 성서를 봉독할 수도 있다) 6)강론 7)묵상(5-10분 정도) 8)신자들의 기도 9)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톨릭 기도서 p.70, 끓는다) 10)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가톨릭 기도서 p.21 참조) 11)Tantum ergo(성가189~193번) = 성체께 분향(제단 앞에 끓는다) 12)성체강복 전 기도 13)성체강복 14)하느님 찬미경 15)퇴장 및 마침 성가(선다)

=> 정해진 예식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례사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례사제와 상의하여 거행한다.

5. 성시간의 독서

1) 구약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113-119항 참조 : 이하 '예식서')

① 창세 14, 18-20	제물로 바친 빵과 포도주
② 출애 12, 21-27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③ 출애 16, 2-4. 12-15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④ 출애 24, 3-8	계약의 피
⑤ 신명 8, 2-3. 15-16	네가 모르는 음식
⑥ 1열왕 19, 4-8	주님의 산까지 갈 수 있게 된 음식
⑦ 잠언 9, 1-6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2)신약 (예식서 120-129항 참조)

① 사도 2, 42-47	빵을 나누어 먹던 제자들
② 사도 10, 34 37-43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신 제자들
③ 1고린 10, 16-17	빵도 하나, 몸도 하나
④ 1고린 11, 23-26	주의 죽으심의 선포와 영성체
⑤ 히브 9, 11-15	우리의 양심을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피
⑥ 1베드 1, 17-21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로 구원된 인간
⑦ 히브 12, 18-19. 22-24	아벨의 피보다 더 진한 피
⑧ 1요한 5, 4-8	성령과 물과 피
⑨ 묵시 1, 5-8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⑩ 묵시 7, 9-14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

3) 복음 (예식서 143-153항 참조)

① 마르 14, 12-16. 22-26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니라
② 마르 15, 16-20	붉은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
③ 루가 9, 11-17	배불리 먹은 사람들
④ 루가 22, 39-46	피땀을 흘리신 예수
⑤ 루가 24, 13-45	빵을 떼 주실 때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
⑥ 요한 6, 1-15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라 명하신 예수
⑦ 요한 6, 24-35	내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으리라
⑧ 요한 6, 41-51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⑨ 요한 6, 51-58	참 양식과 참 음료
⑩ 요한 19, 31-37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⑪ 요한 21, 1-14	빵을 받아 나누어주신 예수

5장. 십자가의 길

1. 정의 및 유래

"예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 넘어가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말로 골고 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요한 19, 16-17). 이 성경구절에 따라 초기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실제로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타까지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드렸던 것에서 유래한다.

초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나 기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14-5세기경부터이다.

1342년 프란치스코회가 성지에 대한 관리를 맡으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는 하나의 신심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그 장소들에 대한 신심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들 사명의 한 부분으로 여겼으며, 이에 따라 더욱 대중화된 이 신심은 십자가의 길 각 처에 대한 신심에서 잘 표현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순례지가 지리적, 정치적인 장애를 받게 되자 유럽에서는 성지 모형의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신심은 먼저 세계 곳곳에 있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원들과 그 수도원의 성당들에서 일반화되었고, 이런 곳에서부터 근처 성당으로 확산되었다.

15-6세기에는 각 처의 숫자가 고정되지 않았으나, 1637년에 이르러서는 교황청에 의해 오늘날처럼 되기 시작하였다.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모든 교회에 십자가의 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처의 숫자도 14처로 고정시켰다.

2. 교회의 가르침

십자가의 신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신심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틀이 아니라 각 처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난 사건들을 통해 이끌어내는 기도와 묵상이다.

이 신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기념하고,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로써 우리가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당하셨던 고통의 깊이를 묵상하고 자신의 위치와 생활을 반성하며, 그분의 수난에 참여하여 그분과 일치하려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또 이 수난의 묵상은 자기만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생각하며 영육간의 희생을 드려야 한다.

특히 사순절의 이 기도는 "만민에게 베풀어진 구원"(루가 2, 31)이신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도록 준비시켜준다.

3. 예식의 전반적인 사항

1) 시작성가

2) 성가가 시작되면 천천히 행렬하여 제대를 앞으로 나와서 선다. 행렬 때 십자가 양 옆으로 초가 서며 십자가고상은 제대를 향한다.(제대에 십자가가 있으므로) 그러나 꼭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각 처 사이를 이동 할 때는 십자가가 한 발 앞에 서고 그 뒤로 초가 따른다. 고상은 앞을 향해야 하며, 처 앞에 서있을 때는 회중을 향한다.

4) 경배 시 십자가와 초 복사는 절을 하지 않는다.

5) 7처에서 8처로 이동할 때 십자가와 초는 제대 중앙통로에 서서 잠시 제대를 향하여 바라 본 다음 이동한다.

6) 14처를 마친 후('어머님께 청하오니 ~'노래 없다) 제대로 이동하여 선다.

7) 마침기도 후 마침성가가 시작되면 입장 때와 동일한 행렬로 퇴장

-> 각 처에서 이동할 때 '십자가'가 앞서는 것이 원칙이나 처의 간격이 좁은 경우 '초-십자가-초'순으로 이동하여도 무방하다.

=> 이 기도의 목적이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데 있으므로 다양한 기도문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각 처의 묵상내용과 기도 방법은 주례사제와 상의하여 거행한다.

6장. 성모의 밤

1. 정의 및 유래

교회는 5월을 성모 성월로 정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성모께 봉헌하고 성모의 모범을 따라 특별한 전구와 은총을 간구하게 함으로써 성모께 대한 신심을 실천하게 한다. 성모의 밤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모여 성가, 묵주기도, 성서 봉독 등으로 성모를 공경하는 행사이다.

2. 교회와 성모 신심

교회헌장 8장 66항을 보면,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어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위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한 천주의 모친으로서, 교회의 특별한 예식으로 공경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에페소 공의회 이후, 하느님 백성의 마리아 공경은 존경과 사랑과 기도와 모방에 있어서 놀라운 정도로 발전하였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같은 마리아 공경은 독특한 것이기는 하지만 혈육을 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받으시는 흠숭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며, 오히려 성모 마리아 공경의 표현은 성삼위께 드리는 흠숭을 더욱 진실 되고 참되게 하는 촉매제라 할 수 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인류 구원계획에 자유롭게 동의하시어 구원사업의 협조자가 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당신 어머니를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로 맺어주시므로써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요 나아가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앙에서 마리아 공경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3. 예식 전 준비 사항

1) 준비물

- (1) 미사가 있을 경우 미사 준비를 한다.
- (2) 예절에 편리하도록 신자석을 조정, 배치한다.
- (3) 필요한 야외 조명과 음향 시설을 준비한다.
- (4) 각 단체별로 꽃 봉헌을 준비한다.
- (5) 신자들은 봉헌용 초를 준비하며, 특별 예물도 준비할 수 있다.
- (6) 필요하다면 신자들은 성모님께 드리는 결심(냉담자 및 예비신자)봉헌문을 준비할 수 있다.

2) 예식 전 준비

야외에 위치한 성모상을 꽃으로 장식하고, 성모상 앞에는 큰 초를 준비하여 장식한다. 야외 제대를 꾸미고 꽃 봉헌대와 촛불 봉헌대를 준비한다. 우천시에는 성당 내에 준비한다.

4. 예식의 전반적인 사항

- 1) 시작성가
- 2) 취지의 말씀
- 3) 본기도
- 4) 말씀의 전례
 - (1) 독서
 - (2) 화답성가
 - (3) 복음
 - (4) 강론
 - (5) 신자들의 기도
- 5) 성모상 촛불 점화 및 단체별 헌화
- 6) 신자 촛불 점화 및 봉헌
- 7) 목주기도
- 8) 헌시
- 9) 성가
- 10) 성모님께 드리는 글
- 11) 성모성심 봉헌문
- 12) 강복
- 13) 마침성가

=> 정해진 예식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례사제와 상의하여 본당 공동체에 알맞게 예식을 정하면 된다.